마구 늘린 택시 결국 구조조정

광주 최대 1600대 감축 대상

업계 반발… 전국 25만대 중 5만여대 공급과잉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택시발전법의 핵심 쟁점은 택시 수를 줄이는 방안과 운송비용 전가 금지 조항이다. 택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과 운송비용을 기사에게 부당하게 떠넘기는 관행은 고질적 문제로 꼽힌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업계의 동의를 완전히 얻지 못해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현실성이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예산·업계 부담금으로 최대 5만대 감축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발달하고 자가용 보급이 확대되면서 1995년에서 2010년까지 15년간 택시의 연간 수송량은 23% 감소했으나 면허 대수는 오히려 24%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선거 때마다 선심성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마구잡이로 발급한 탓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2009년 전국 택시 25만5000대 중 5만대, 즉 5대 중 1대꼴로 '공급 과잉'이라고 추산했다. 특히 개인택시는 1995년 11만8000대에서 2011년 16만3000대로 16년 만에 38%나 증가했다.

광주지역의 경우 현재 법인 3471대·개인 4748대 등 모두 8219대가 운행 중이다. 만약 20%를 감축한다고 가정하면 광주에선 1600대 가량이 감축 대상이 된다.

정부는 택시를 줄이고자 애초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와 상속을 금지하고 택시기사의 정년을 75세로 제한하며 대당 1300만원(국가와 지자체 3대7 비율 부담)의 감차 보상금을 지급하려 했지만, 전국 평균 7000만원 가량인 개인택시 프리미엄보다 턱없이 낮았던 탓에 벽에 부딪혔다.

결국, 개인택시 면허를 사고파는 것을 그대로 두고 실거래가 보상으로 방침을 전면적으로 수정했다.

국토부는 택시 종사자들이 받는 유가보조금을 감차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지만, 개인택시 업계는 "원칙적으로 감차에 동참할 길을 열어뒀지만, 완벽히 합의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총량 조사를 통해 내년 하반기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한 다음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자체별 감차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맹성규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5년간 2만~5만대를 감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개인택시를 2만대 줄일 경우 정부와 지자체 예산은 대당 1300만원씩 모두 2600억원이 들며 5만대를 줄이면 6500억원이 필요하다.

◇택시업계, 태스크포스 참여 거부

국토부의 택시발전법은 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부에서 받던 유가보조금을 감차 보상금 재원으로 내놓으라고 하면 동의하지 않고 강하게 반발할 사람이 많아 정부의 뜻대로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업계는 전망한다.

국토부는 법안을 국회로 제출하고 3개월간 업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택시산업발전 종합대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개인택시조합연합회를 빼고 나머지 3개 택시 단체는 이미 참여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상태라 정부가 업계를 어떻게 끌어안을지 주목된다.

현재 택시업계는 정부 법안에 반대하면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지원해달라는 요구를 계속 내세우고 있다.

기우석 민주택시노조 기획국장은 이날 "법만 만들어놓으면 현장에서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하는데, 대부분 사업장에서 노사 갈등이 심해질 것이다. 회사에도 이득이 되고 노동자 처우도 개선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택시업계는 9월 정기국회에서 택시 대중교통법안이 재의결되는 것을 목표로 총력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종행기자 golee@·연합뉴스

'난중일기' 심의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자문위원들 '제11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가 18일 광주 서구 치평동 라마다호텔에서 개막했다. 자문위는 21일까지 나흘간 '난중일기'와 '새마을운동 기록물' 등 54개국 84점의 기록유산을 심의한다. 개막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들. /나명주기자 mjna@

광주 새 야구장 바닥돌·기증품 시민참여 저조

市, 프로젝트 마감 한달 연기 홍보 강화

광주시가 새 야구장 건립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시민 참여 프로젝트'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새 야구장 건립에 일반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기념 바닥돌을 설치하고, 야구박물관 기념물품 및 자료를 기증받고 있다.

기념바닥돌 사업은 새 야구장 주변에 700~800㎡ 바닥에 시민의 '염원' 새겨진 돌을 3만원(30㎝X15㎝·글자수 12자)또는 5만원(30㎝X30㎝·글자수 20자)을 받고 설치하는 것이다.

시는 새 야구장에 평생 남을 자신만의 문구가 새겨진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높을 것으로 보고 1만건 유치를 목표로 홍보 포스터와 안내문을 제작·배포중이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목표치의 21%에 불과한 2100건이 접수되는데 그치고 있다. 시는 기념바닥돌 설치 신청 마감을 이달 말에서 다음달 말로 한 달간 연기했다.

시는 또 새 야구장 바로 옆에 신축중인 야구박물관(지상 2층·연건축면적 1314㎡)내에 전시할 기념물품 및 자료도 기증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일반시민 기증품은 68건에 불과하다. 더욱이 기증품 대부분은 박물관에 전시하기 힘든 싸인볼, 트로피, 야구장 입장 티켓 등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유명 야구인들과 접촉해 역사성이 있는 야구물품의 기증을 유도하고, 야구부가 있는 광주·전남 초·중·고등학교 등을 직접 방문해 야구물품과 자료를 수집하기로 했다.

또, 개인 위주의 홍보에서 벗어나 회사와 단체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기념바닥돌 접수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기념바닥돌 설치와 야구박물관 기증품 전달과 관련한 문의는 기아타이거즈(070-7686-8068), 광주시 체육진흥과(062-613-3542)로 하면 된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대통령 소속 청년委 위원장에 남민우씨

박칼린·장미란 등 위원 19명 위촉

남민우

박칼린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대통령 소속 청년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으로 남민우(51) 다산네트웍스 대표이사를 임명하고 이외 청년멘토 10명과 청년대표 8명 등 모두 19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했다.

이날 청년위원회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전날 국민대통합위원회에 이어 새정부 들어 새로 활동하게 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두 개로 늘어났다. 나머지 하나의 대통령 소속 위원회인 지역발전위원회도 이번 주 내에 출범할 예정이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청년위원회는 청년과의 소통은 물론 청년정책과 관련한 본격적인 활동을 할 예정"이라면서 "일자리와 교육 등 청년관련 정책을 논의하고, 청년과 소통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청년위는 앞으로 청년의 창업과 취업 활성화 등 일자리 창출, 미래 인재 양성, 청년과의 소통 활성화 및 청년정책의 기획·조정 등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된다.

청년위원들은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국제무대에서의 활동 그리고 청년멘토링 등의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한 젊은 인재들로 구성됐으며, 평균 연령은 34세라고 이 수석은 밝혔다.

신임 남민우 청년위원장은 2000년대 벤처 붐을 이끈 제1세대 대표주자로, 그동안 창조경제를 이끌며 청년창업가들에게 멘토링을 하는 등 청년을 위한 활동을 해왔던 점이 높이 평가돼 위원장으로 인선됐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청년위원으로는 박칼린씨, 나승연 아리랑 TV MC, 전 역도선수인 장미란씨, 카카오톡의 이제범 공동대표와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의 박기태 단장, 지난해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부산에서 문재인 의원과 맞붙었던 손수조 새누리당 미래세대위원장 등이 각각 청년위원에 위촉됐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암 걸려도 부자가 오래산다

고소득층 생존율 13.8%P 높아… 학력격차 사망률 8배차

똑같이 암에 걸려도 고소득층의 생존율이 저소득층에 비해 뚜렷하게 더 높고, 학력 격차에 따라 사망률이 8배 이상 차이나는 등 우리사회의 계층간 건강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이 같은 불평등 양상이 대물림되는 경향까지 나타나 정부의 보다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보건사회연구원의 '우리나라 건강형평성 현황 및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암환자 4만3000여명의 소득계층별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 소득 5분위(상위20%) 남성 환자의 5년 생존율은 37.84%로 소득1분위(하위20%)의 24.04%보다 13.80%포인트(p)나 높았다.

이 조사는 지난해 윤태호 부산대 교수 등이 국가암등록자료 및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한 것이다.

3년과 1년 생존율 차이도 각각 14.32%p(43.42-29.10), 14.69%p(61.94-47.25)에 달했다.

여성 암환자 역시 최고소득층과 최저소득층의 5년, 3년, 1년 생존율 격차가 각각 8.46%p(60.81-52.35), 8.58%p(65.72-57.14), 6.35%p(77.37-71.02)로 확인됐다.

특히 소득에 따른 불평등은 치료 과정에서부터 나타나는데 남녀 가릴 것없이 고소득 암환자일수록 이른바 4대 메이저 상급종합병원 이용률이 높은 반면, 저소득층은 종합병원과 병의원에 몰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정최경희 이화여대 교수 등이 한국건강형평성학회에 발표한 '교육수준별 사망률 격차' 보고서를 보면, 2010년 기준 30~44세 여성 중 중졸이하 학력집단의 사망률은 대졸이상 집단의 8.1배에 달했다. /연합뉴스

전남개발공사 신임사장에 민간 경영인 등 7명 응모

전남개발공사 신임 사장 공모에 민간 경영인 등 7명이 서류를 접수했다.

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위원장 이영규)는 18일 "제5대 사장 공개모집 결과 민간 경영인 출신 1명, 공기업 출신 3명, 공무원 출신이 3명 등 7명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오는 20일 서류심사를 한 뒤 면접 대상자를 선발하고, 이달 말께 면접을 거쳐 최종 후보자를 도지사에게 복수 추천하게 된다.

한편 개발공사는 김주열 전 사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임기 중 사직함에 따라 후임 사장 공모에 들어갔고, 신임 사장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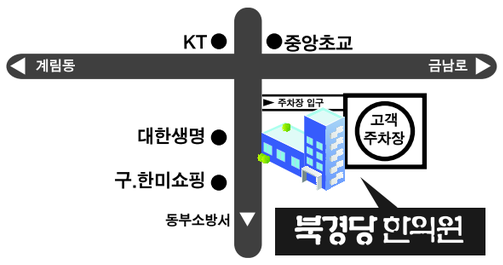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동양의학 수강생 모집
Self 건강관리를 위한 힐링강좌!
동양의학을 왜 배워야 하는가?
· 동양의학적 치료원리를 이해하여 자연치유력을 회복
· 서양의학과 병원치료의 한계를 극복
· 효과적인 국내외 선교 및 포교활동
· 국내 의료개방 대비와 해외한의사 진출
· 건강 및 대체의학 관련 사업의 소득증대
* 침구학 기본과정(4개월-주1회3시간)
주요과목 : 침구학개론(침 · 뜸기초,경락경혈,침구치료),한방기초
* 동양의학 전문과정(1년~3년)
주요과목 : 중의기초이론, 진단학, 본초학, 방약학, 경혈학 등
공개강좌 광주 34기) 6월 21일(금) 13시
광주 35기) 6월 22일(토) 17시
위치 : 쌍촌역 2번출구에서 운천역방향 180m 중앙평생교육원내 2층
산동중의대 중의학 연수생 모집
3년 필업(졸업) 과정
◉ 교과내용 : 침구학, 침구치료학, 추나학, 해부생리학, 본초방제학, 사암오행, 동씨기혈 등
◉ 중국자격증, 면허 취득가능, 중의대 석박사학위 과정 진학가능
◉ 해외 한의대 편입 및 미국한의사시험응시가능
◉ 해외 한의사 진출(세계각국에서 한의원 취업 및 창업가능)
※ 본 문화원은 침구학 및 대체의학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곳으로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since 1985. 침구학 전문교육기관
CH아카데미
www.wch.ac.kr 전국대표번호 : 1544-5359

스마트폰 비즈니스를 선도 할
전국지사 / 대리점 및 딜러 모집
● 모든 기술 제반 본사 지원!
● 영업/마케팅을 통한 확실한 수익보장!
● 개인/기업 누구나 참여 가능!
더 가온의 서비스란?
▶ 스마트폰으로 상대방의 명함을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스마트 명함
▶ 오프라인의 출입카드를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출입카드
▶ 강력한 스마트폰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스마트폰 서비스

<특허출원> 10-2013-0019348
" 당신의 성공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 드립니다 "
The Gaon
주식회사 더 가온
☎ 02)6925-2558/ 010-8794-7609
www.thegaon.co.kr

사 원 모 집
사계절 푸르른 양잔디, 친환경 나비의 고장 함평다이너스티 CC에서 함께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부문
- 웨이터, 웨이츄레스, 주부사원(신입 및 경력) 0명
- 조리사 0명
■ 자격요건
- 고졸이상 학력 취득자
- 경력자 우대
■ 급 여
- 연봉제 1,900만원이상(퇴직금 별도)
- 경력자 면접 후 결정(이력서 우측상단에 희망연봉 기재)
■ 복리후생
4대보험 가입, 숙식제공, 각종 수당 지급, 경조사지원, 우수사원포상, 단체상해보험가입, 교통비 지급 등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전형방법
- 우편 및 이메일, 방문 접수
- 접수기간 : 충원시까지(충원시 조기마감)
- 서류접수 후 면접일자 개별통보
접 수 처
- 주 소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1-6
- 담 당 : 경영지원팀 오승태 부팀장
- 전 화 : 061)320-7717
- 팩 스 : 061)320-7710
- 이메일 : seungtae01@naver.com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50년 전통 대를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클리닉
체성분 분석기 도입,체지방분해침 시술, 고주파 지방분해 시술
한의학 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진료문의 062)227-7575
진료시간
평 일 : 오전9시~오전7시
토요일 : 오전9시~오전4시
일요일휴진,공휴일은 오전진료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0130-중-2696호